

내 인생의 소중한 재산, Texas A&M 에서의 교환학생 생활

전지성

10 개월 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감회가 새롭다.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 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학교 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질들, 고쳐야 할 점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기에 더욱 뿌듯했다.

우선 수강하는 수업에 충실했고 강의를 따라가면서 순천향대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자질을 기를 수 있었다. 수강한 과목으로는 전공 과목인 Business Finance, Real Estate 뿐만 아니라, Public Speaking 이라는 발표 수업, 오케스트라 수업, 골프수업, 중국어 등이 있다. 일단 Business Finance 는 수강한 과목 중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고 점수도 잘 나왔던 과목이다. 원래 전공인 금융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를 미국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한국 금융 시장 또는 한국계 회사에 관해 수업을 들었지만,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에서 미국 금융 시장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국제 시장에서의 금융을 보는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Real Estate 수업은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이 처음이고 교수님의 영어 억양을 알아듣기가 힘들어 공부하는 데 꽤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강의를 녹음하고 들리지 않는 부분은 반복하면서 듣고, 그래도 들리지 않는 부분은 미국 친구에게 받아 적어달라고 부탁까지 하며 공부한 덕분에 처음보다는 교수님의 발음을 이해하기 쉬웠고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가장 힘들게 들었던 과목은 Public Speaking 이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한 학기 동안 네 번의 발표를 해야 하고, 매 발표를 위해 믿을 만한 자료 수집, 개요 작성, 발표 연습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수업이었다. 미국 학생들 중에서도 발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기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에게는 더욱 어려운 도전 이었다. 어려웠던 수업이었기에 이를 통해 배운 것도 더욱 많았다. 우선 영어로 발표했던 것 자체가 나중에 영어로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에 가기 전에도 포럼이나 영어 발표 대회를 통해서 영어 발표 기회를 가졌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영어 발표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이 외에 한국에서는 정식 코스에서 배우기 어려운 골프를 학교 캠퍼스에 있는 널따란 정식 코스에서 배울 수 있었다. 오케스트라 수업도

지금까지 연주하던 현악기 합주뿐만 아니라 관악기, 합창단과도 함께 협연하여 큰 공연을 가질 수 있어서 길이길이 기억된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다.

수업 외 활동으로 봉사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The Big Event 라고 불리는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가 위치한 College Station 의 공동체를 돕는 학교의 연중 큰 행사, 전통 중에 하나이다. 이 전통이 추구하는 가치도 값어치 있고, 몇 천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친구들과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 그룹의 리더가 되어 자원봉사 참여를 신청,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우리가 맡은 일은 한 가정집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긁어 모으는 일이었는데, 커다란 검정 쓰레기 봉지 9 장을 낙엽으로 꽉꽉 채웠으니, 몸은 힘들었지만 외국에 나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부부를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또한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Houston Trip 이 있다. 텍사스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Houston 을 방문한 것인데, 단지 여행으로 방문 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금융 동아리 회원 학생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금융 회사를 방문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금융 동아리 회원은 아니었지만, 금융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교수님의 추천에 무작정 따라 나서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금융 회사를 방문 해 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은행, 회사를 방문 할 수 있어서 금융을 공부하는 내게는 멋진 경험이었다. 각각의 회사가 어떤 곳인지, 나중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근무 하시는 분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금융 쪽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고,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또는 기업을 위해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 등 미처 신경 쓰지 못 했던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앞의 내용과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추억들이 될 것이고 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곧 떠나는 분들에게 한국에서는 해 볼 수 없는 것들에 도전해보라고 당부하고 싶다. 외국에 나가서 막상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고 외국인의 신분엔 영어를 현지인만큼 하지 못 하는 하기에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환학생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것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러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에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교육 방식이 달라 미국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교수의 설명 도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손을 드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발표가 성적에 반영되는 수업도 있다. 미국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하는 그룹 과제도 많은데, 나나 같이 간 친구들이나 모두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도 막상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속도에 맞추지 못 해 다른 학생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만 있기가 일쑤이다. 참여는 해야겠는데 정 어렵다면, 같은 그룹 학생들에게 자신이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할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을 직접 찾아 뵙고 자신이 교환학생임을 알리고 강의를 따라가는 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미국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넘쳐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외국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게 큰 관심을 갖고 항상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한다.

이 외에도 미국에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은 바로 여행이다. 미국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여행을 했다. 앞으로 갈 교환학생들도 현지에서 여행을 한다면 비용부담이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적기에 기회가 있다면 여행도 하고 돌아왔으면 한다.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곳이 아니어도 차가 있는 친구와 동행하여 로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가까운 곳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여행한 곳은 서부 쪽의 LA, Grand Canyon, Las Vegas, San Francisco 와 북서부 쪽의 Seattle, Portland 북동쪽의 New York, 내가 지냈던 남쪽 Texas 의 Houston, Dallas, Austin, San Antonio 등이다. 연합국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각 주, 각 도시의 특색이 뚜렷했다. 굉장히 더운 곳에서부터 추운 곳, 건조한 곳, 습한 곳 등 한나라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이런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여행을 통해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기에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한다. 수없이 반복해서 말해도 내가 느끼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모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스스로가 한국에 돌아 온 후 한 층 성장했음을 느낀다. 다시는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기도 하다. 나뿐만 아니라 후배들 친구들도 풍부한 경험을 하고 몸 건강히 수학을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한다.



Texas A&M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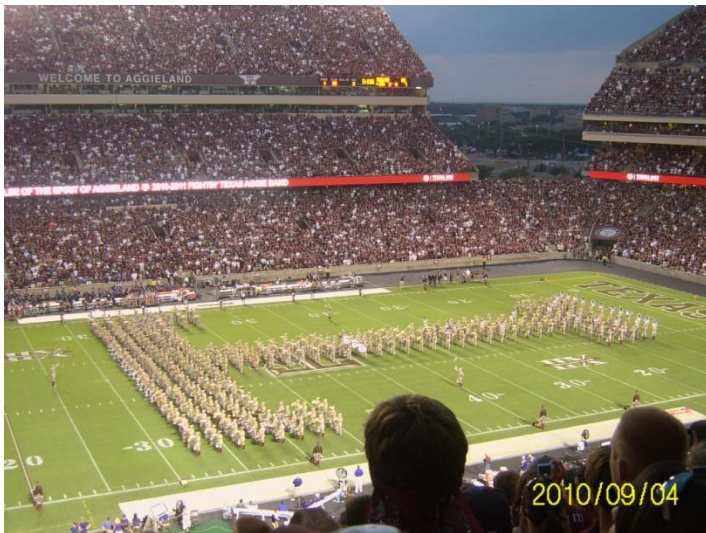
The Big Event



Houston trip
(Visiting financial companies)



Chinese Speaking Contest



Texas A&M, Aggie Football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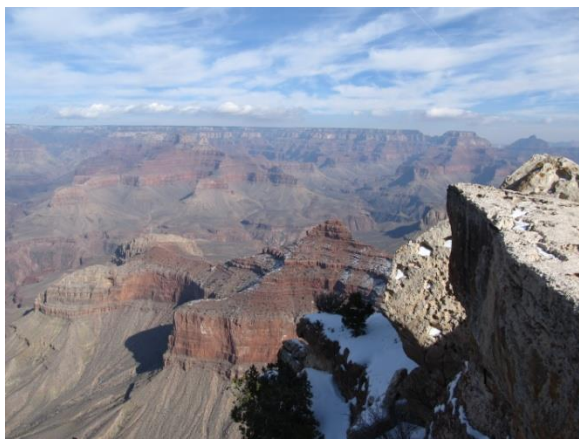
Halloween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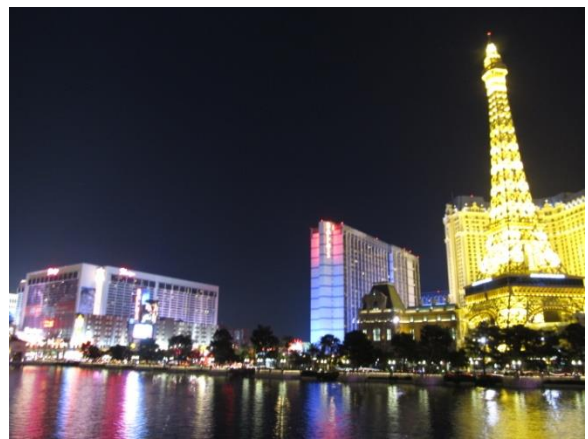
Times Square, NY



The Statue of Liberty, NY



Grand Canyon



Las Vegas



Seattle



Golden Gate Bridge, SF